

신라노래의 새로운 유형과 한국시가의 정체성*

류해준**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신라노래인 짧은 향가와 그 정형성
3. 신라노래인 분련시 향가의 지속과 그 흐름
4. 신라노래인 장시의 맥락과 그 발전
5. 나오는 말

* 이 글은 국제 PEN 한국본부에서 주최한 제4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경주, 2018년 11월 6일 ~ 9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흐름」(『세계 한글문학 민족문학의 요람』, 제4회 세계 한글작가대회 발표자료집)의 내용을 논문의 형식으로 집고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성결대학교 교수. rhc0315@hanmail.net

[국문초록]

한국문학에서 신라노래의 갈래와 한국시가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일은 긴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라노래의 전통과 한국시가의 정체성을 형식과 그 갈래구분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신라노래에 나타난 시형식의 유형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 한국시가의 유형과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노래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신라노래의 유형과 한국시가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료와 그에 관한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많은 선학과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발굴된 고대사회의 자료를 가지고는 신라노래의 유형과 한국시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연관시킬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신라노래의 유형을 새롭게 3가지로 나누고 한국시가의 흐름과 그 정체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뉘어라고도 불리는 향가가 중심이 되는 신라노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보인다. 하지만 신라노래의 유형은 크게 정형성을 지닌 짧은 향가(鄉歌)로 단형시(短型詩)이거나, 정형성을 지닌 노래가 연(聯)으로 이어진 노래로 분련시(分聯詩)로 이루어지거나, 가사(歌辭)나 사부(辭賦)처럼 장시(長詩)의 형식을 지닌 긴 노래 등의 3가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노래의 3가지 형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한국시가의 중요한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3가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형식은 줄의 수가 제한되어 정형성을 지니고 있는 단형시(短型詩), 연의 수를 구분하고 나누어서 이어지는 분련시(分聯詩), 그리고 연의 수가 나누어지지 않은 장시(長詩) 등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노래의 형식인 단형시, 분련시, 장시 등의 유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한국시가에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1세기인 오늘날의 현대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시형식으로 한국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글은 지금까지 선학들이 이루어 놓은 신라노래에 관한 형식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신라노래의 유형을 단형시, 분련시, 장시 등의 3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형식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신라노래의 형식과 한국시가의 역사적 맥락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관점의 논의들을 존중하면서 이 글의 문제점을 차근차근하게 보완하고 해결하여 새로운 결론으로 발전시켜 이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신라노래, 한국시가, 시형식, 단형시, 분련시, 장시, 정체성, 향가, 가사, 현대시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신라노래를 대표하는 향가의 유형이 한국시가의 지속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신라노래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어학적인 해독이 중심이 되어 문학적인 해석을 함께 하는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신라노래의 형식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신라노래인 향가의 유형에 관한 논의는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나타난 25수의 향가작품에 관한 해석과 함께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10구체의 형식을 대표적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양주동은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있는 향가의 개별작품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시가의 시어, 운율, 형태, 내용 등의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²

그리고 『균여전』에 나타난 삼구육명(三句六名)³이라는 향가의 형식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한국시가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향가의 형식론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균여전』의 「역가현덕분(譯歌現德分)」에서 향가의 구조로 제시한 이 논의는 삼구육명의 향가문학이 삼장육구(三章六句)를 지닌 시조문학의 기원이 되는 학설로도 이어

1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참조.

홍기문, 『향가해석』, 사회과학원, 1956, 참조.

정렬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참조.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참조.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참조.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참조.

류열, 『향가연구』, 박이정, 2003, 참조.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과 책이 있음.

2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양주동, 『증정고가연구』, 일조각, 1965.

3 『균여전(均如傳)』, 「역가현덕분(譯歌現德分)」, 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

지게 되었다.⁴ 이러한 연구는 신라노래인 향가문학의 형식이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유행한 시조문학의 형식으로 그 맥락을 이어주는 논의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라노래의 형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향가문학이 지닌 개별작품의 형식론인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논의와 향가문학과 시조문학의 정형성과 관련한 개별작품의 형식으로서 삼구육명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삼구육명에 관한 논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고,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식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라노래의 한 갈래인 향가문학이 지닌 개별작품의 형식보다는 신라노래 전체의 형식을 분류하여 신라노래가 전승되고 지속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신라노래와 그 잔존의 형태로서의 시가(詩歌)를 향가나 사뇌가라는 명칭으로 포괄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신라노래의 한 갈래인 향가나 사뇌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명칭으로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대사회인 신라시대에 지어진 향가, 사뇌가, 민요, 도술가, 한역가, 한시, 장가 등의 다양한 명칭을 함께 포함하는 신라노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라노래라는 용어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시가문학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칭은 새롭게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논의하는데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헤아리지 못한 시각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기존의 신라노래의 유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시가의 정체성과 신라노래의 지속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향가가 중심이 되는 신라노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보이지만 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라노래의 유형에는 『삼국유사』에 실린 문학과 음악으로서 정형성을 지닌 비교적 짧은 14편의 향가(鄉歌)이거나, 『균여전』에 실

4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2, 62-67면.

5 조동일, 『한국문학사통사』 1권, 지식산업사, 128면, 참조.

린 향가처럼 정형성을 지닌 노래가 11개의 연(聯)으로 이어진 노래이거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부(辭賦)나 가사(歌辭)처럼 장시(長詩)의 형식을 지닌 긴 노래 등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한국시가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신라노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시가의 유형은 줄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짧은 단형시(短型詩)이거나, 연을 구분하여 반복하는 분연시(分聯詩)이기도 하고, 연의 수가 나누어지지 않은 장시(長詩) 등의 3가지 유형으로 시형식을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노래의 이러한 유형이 고려시대의 노래와 조선시대의 노래를 관통하여 한국시가의 흐름에 주된 맥이 되는 현상과 그 정체성을 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신라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시가의 형식을 단형시, 분연시, 장시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여, 한국시가의 유형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2. 신라노래인 짧은 향가와 그 정형성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향찰(鄉札)로 표기한 신라의 짧은 노래이다. 지금까지 향찰로 표기된 향가를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가장 큰 문제는 향찰(鄉札)로 표기된 작품의 정확한 해석이다. 작품의 어학적 연구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논단하기에는 거리가 있다.⁶ 향가의 해독의 정밀도는 원문의 9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가의 문학적 해석과 문화적 연구는 지속⁷되어야 한다.

다음의 문제로는 신라노래인 향가의 명칭과 관련된 갈래와 장르의 논의였

6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2000, 17면.

7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35면 참조.

다. 일상적인 개념의 향가는 신라 사람들이 즐겨 창작하고 불렀던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명칭이다. 신라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은 한시(漢詩)나 외국에서 들어온 노래를 구별하기 위해서 순수한 우리말의 노래라는 의미로 향가를 사용했다. 이처럼 신라시대에는 보통명사인 신라노래로 사용했던 향가의 명칭이 19세기 말부터는 그 의미가 한정되어 고유명사가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향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삼국유사』에 실린 향찰문자로 표기된 일련의 신라노래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향가라는 명칭⁸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신라노래로서 단형시의 짧은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14편의 향가인 사뇌가(詞腦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균여전』의 향가는 분연시인 11수의 향가를 함께 모아서 「보현십원가」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문헌의 향가는 단형시의 향가와 분연시의 향가라는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향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균여전』의 향가보다는, 많은 작가가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향가의 연구자들은 단형시의 형식으로 4구체, 8구체 그리고 10구체의 형식을 지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14편의 향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작품을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은 현재 문헌에 전하는 향가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서동요」와 「혜성가」를, 늦은 시기의 작품으로 「처용가(879)」를 근거로 하여 삼국시대의 말기인 6세기부터 고려전기인 9세기까지 존재했던 갈래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형식면에서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삼국유사』의 신라노래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이루어지는 정형성을 지닌 짧은 단형시의 노래라는 논리를 체계화하였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시대의 짧은 단형시의 노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서동요」와 「혜성가」를 비롯하여 「안민가」, 「도솔가」, 「제망매가」, 「찬기

8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13면.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90, 19면.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4, 15-26면 참조.

파랑가», 「안민가», 「원왕생가」 등의 14편의 노래가 있으며, 이외에도 가사가 전해오지는 않지만, 『삼국사기』에 소개된 「회소곡», 「물계자가」 등의 노래가 이 갈래에 속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신라의 짧은 노래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시대에 유행한 단형시인 고려가요의 짧은 노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시가의 형식을 하나로 정리하여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가요가 지닌 형식의 특성을 단형시인이가 분련시인가의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 창작되고 향유된 고려가요의 형식을 유형화할 수 있는 큰 기준은 「정과정곡」처럼 연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짧은 노래, 「청산별곡」처럼 몇 연으로 나누어지는 긴 노래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연을 구분하지 않은 단형시로서의 고려가요는 「정과정곡», 「사모곡», 「상저가», 「유구곡», 「이상곡」 등이 있다.⁹ 이들의 노래는 의미상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노래도 있고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작품도 있다. 고려가요에서 형식상으로 연을 구분하지 않고 단형시(短型詩)로 된 노래들은 신라노래인 향가에 나타난 짧은 단형시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단형시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져왔다. 짧은 단형시의 전통을 지닌 향가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고려가요와 서로 융합하였고, 고려말기에 이르러서는 고려시대의 고려가요와 융합하여 시조라는 정형시를 탄생시켜서 한국문학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고려말기에는 신흥사대부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계층으로 성장하면서 신라노래의 짧은 형식을 이어받은 시조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조선초기에는 선비와 사대부들이 시조를 한국의 정형시로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시조의 주된 작가층이며 향유층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정형시인 시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성장한 시조는 고려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정형시로서 우리의 시가문학 가운데서도

9 이종출, 「고려속요의 형태적 고구」, 『고려가요연구』, 국어국문학회편, 1987, 65-77면.

가장 오래도록 우리 민족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갈래가 되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짧은 신라노래의 형식인 『삼국유사』의 단형시인 향가는 「정과정곡」, 「사모곡」, 「상저가」, 「유구곡」, 「이상곡」 등의 단형시인 고려가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가요는 시조가 신라문학의 정형성을 계승하고 수용하여 정형시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조는 향가의 3구(句) 6명(名)의 구조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3장(章) 6구(句)의 정형성을 겸비한 정형시의 갈래로 성장하게 되었다.¹⁰ 이렇게 정형시의 형식을 갖추게 된 시조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창작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는 정형성을 지닌 짧은 신라노래인 향가의 형식과 그 내용을 계승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렇게 신라의 향가와 고려가요의 형식을 계승한 시조는 한시(漢詩)의 절구(絶句)나 일본의 하이쿠, 서구의 소네트에 비견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로 세계적인 문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3. 신라노래인 분련시 향가의 지속과 그 흐름

『균여전』의 「보현십원가」는 신라노래인 10구체 향가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11편으로 구성된 분련시의 형식으로 불교의 사상을 펼쳐내고 있다. 주지하듯이 신라노래인 향가가 전해오는 주된 문헌으로는 『균여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이 있다. 이들 문헌은 저자가 편찬한 동기와 그 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신라노래의 내용과 형식도 상당히 다르게 실려 있다.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1281년경에 발간한 『삼국유사』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1075년에 발간한 『균여전』의 한역시를 향가해독을 위

10 김학성, 「삼국육명의 해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136면 참조.

한 보조자료로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균여(923-973)는 신라 말기인 923년에 황해도 황주에서 출생하여 신라불교인 화엄종의 종통을 계승하고 통합한 승려로 이름을 드날렸다. 고려시대에 주로 활동했으나 신라노래인 향가의 형식을 활용한 「보현십원가」를 창작하여 대중에게 실천하는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1075년에 편찬한 그의 전기인 『균여전』에는 불교의 교리를 향찰식으로 표현한 신라노래, 즉 11연으로 구성된 분련시인 「보현십원가」가 실려 있다.

김부식(1075-1151)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신라노래의 이름과 그 창작배경에 관한 다양한 설화를 서술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신라노래인 향가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부식은 역사를 중심으로 『삼국사기』를 1145년에 편찬하면서 1281년에 편찬한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신라노래의 노랫말 가사보다는 창작의 배경과 그 문화를 더 치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는 향가인 신라노래를 한시로 의역하거나 신라노래의 제목을 간혹 실어서 그 당시의 신라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잘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노래의 자료를 『삼국유사』의 향찰로 된 신라노래를 연구하는 보조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균여전』에 실려 있는 분련시로 된 향가이며 신라노래의 형식을 계승한 「보현십원가」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즉 분련시인 『균여전』의 향가작품을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향가인 단형시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라노래의 시형식의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통시적인 측면에서는 11세기 『균여전』에 실려 있는 「보현십원가」를 시작으로 한국시가에 나타난 분련시의 지속과 그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가는 한국의 시가문학에서 연을 구분한 신라노래의 지속성과 그 흐름을 살펴보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¹¹ 신라노래인 향가의 형식은 『삼국유사』에 실려

11 『균여전(均如傳)』의 원래 제목은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이다. 저자인 혁연 정(赫連挺)은 1075년 균여(均如, 923-973)의 인품과 덕성을 알려줄 전기가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균여 대사가 입적한 후 100여년이 지난

있는 연을 구분하지 않은 짧은 단형시 형식의 향가와 『균여전』에 실려 있는 「보현십원가」처럼 연을 구분하여 11수로 창작한 분련시인 향가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균여전』에 실려있는 「보현십원가」의 분련시 형식을 신라노래의 또다른 형식으로 수용하였을 때 신라노래는 단형시와 함께 분련시를 함께 향유하고 창작했다는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삼국유사』의 향가와 『균여전』에 실려있는 향가의 유형과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신라노래인 향가에서 단형시와 분련시의 시형태가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시각으로 신라노래의 시형식을 살펴보면, 『균여전』의 분련시인 향가형식도 『삼국유사』의 단형시인 향가처럼 향가의 새로운 시형식이 되어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형식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신라노래의 형식을 찾아내는 논리는 『균여전』에 실려 있는 「보현십원가」처럼 향가가 연을 구분한 분련시의 노래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향가처럼 연을 나누지 않은 짧은 단형시의 노래로 구분하여 신라노래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형시와 분련시의 시각으로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지속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시가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독창적이며 주체성을 지닌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균여(923-973)의 일생을 서술한 『균여전』은 1075년에 혁연정이 발간했으며, 1281년경에 일연(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보다 200여 년이 앞선 향가의 자료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와 『균여전』은 신라노래의 해석과 그 이해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삼국유사를 편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향가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라는 시각에

뒤에 이 전기를 발간하였다. 이 전기에는 분련시로 된 11편의 향가인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와 그 한역시(漢譯詩)를 수록하고 있어 신라노래인 향가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2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20면, 참조.

서 『균여전』을 당연히 향가 해석의 핵심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보현십원가」에 표현된 분련시의 형식에 주목하여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에 나타난 분련시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한국시가의 지평을 넓히는 핵심자료로 『균여전』을 활용하고자 한다.

「보현십원가」는 균여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화엄경(華嚴經)』의 「보현십행원(普賢十行願)」의 교리에 향가 한 수씩을 짝 맞추어 지은 분련시라 할 수 있다. 고려 4대 광종(光宗, 949-975) 시대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경남 합천(陝川) 해인사의 장관(藏版)으로 전하는 『균여전』에 향찰(鄉札)로 전해오고 있다.

이 노래는 『균여전』의 제7장인 「가행화세분(歌行化世分)」에 기록되어 있다. 7장의 제목을 한글로 설명하여 풀이하자면 ‘노래를 불러서 세상을 교화시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현십원가」에는 각 작품의 서문과 향찰로 된 원문을 실고 있다. 그 내용은 보현(普賢)보살이 구도자(求道者)인 선재동자(善財童子)에게 말해 주었다는 열 가지의 교리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를 불러서 세상을 교화시키는 「보현십원가」에 실려 있는 각 연의 제목과 그 노래의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연은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로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노래이며, 제2연은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로 바다와 같은 여래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이고, 제3연은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로 널리 공양하는 덕을 닦고 찬양하는 노래이다. 제4연은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노래이며, 제5연은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로 남의 선행을 기뻐하며 따르는 노래이고, 제6연은 「칭전법륜가(稱轉法輪歌)」로 해탈한 자가 부처님의 설법이 못 중생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노래이며, 제7연은 「청불주세가(請佛住世歌)」로 부처님의 법과 마음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노래이다. 그리고 제8연은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로 항상 불교의 교리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노래이며, 제9연은 「항순중생가(恒順衆生歌)」이니 언제나 중생을 따르겠다는 노래이고, 제10연은 「보개회향가(普皆廻向歌)」로

모든 것을 중생에게 돌린다는 노래이다. 그리고 제11연은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로 총체적으로 불교가 무궁무진하여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끝을 맺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서문에 밝힌 바와 같이 ‘얕은 곳을 지나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교리’를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불교가 추구하는 화엄(華嚴)사상의 실천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의 교리만을 중요시하거나 실천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이론과 실천을 함께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신라노래의 형식인 향가를 빌려서 「보현십원가」라는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이처럼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는 신라말에 태어나서 고려전기에 생존한 고승(高僧) 균여대사가 지은 신라노래의 형식을 지닌 향가이다. 작품의 모두를 11편의 사뇌가라고 지칭하기도 하는 「보현십원가」는 하나의 제목으로 연작된 분편시의 형태로 짜여져서 『균여전(均如傳)』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10세기 말로 추측되고, 균여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년이 지난 후 혁련정(赫連挺)이 지은 『균여전(1075)』에 실려 있다. 출판과 시대의 선후로만 살펴보면 『삼국유사』가 출판된 1281년~1283년보다는 200년이나 일찍 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간행된 순서로 보면 신라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출판물이 『균여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균여전』은 『삼국유사』만큼이나 중요한 자료로 다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균여전』의 제8장에는 「역가현덕분(譯歌現德分)」이 있는데, 이 장은 「보현십원가」의 노래를 한시(漢詩)로 번역하여 그 공덕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실고 있는 글이다. 이 장에서는 7장의 사뇌가를 최행귀(崔行歸)가 한시(漢詩)로 번역하였는데, 향찰로 적힌 「보현십원가」 11 수와 최행귀가 번역한 한역시들은 의미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한역시를 번역한 최행귀가 「보현십원가」의 근간이 되는 불교의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역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행귀가 번역한 이 한역시는 향가인 신라노래를 어학적으로 해독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현십원가」는 우리 시문학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신라노래로 사뇌가의 형식을 빌려와 11수로 이루어진 분련시의 시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보현십원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 신라노래이면서 문헌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분련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라노래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균여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라노래의 연구는 원전자료의 부족으로 지나치게 『삼국유사』라는 텍스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일연(一然, 1206-1289)은 한국의 설화 속에 전해 오는 신라노래를 수집하여 향찰로 표기한 신라노래를 신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신라노래의 연구하는데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신라노래의 연구에서 『삼국유사』가 지니는 문헌적 가치의 중요성은 연구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이야기 중심의 설화집으로서 신라노래인 향가를 향찰식 표기법으로 기록하여 14수의 단형시인 향가를 신고 있어 향가연구의 주된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균여전』에서는 「보현십원가」라는 제목으로 불교의 교리를 11수의 연으로 구분하여 노래하고 있는 분련시인 향가¹³를 신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작품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향가문학의 자료 중에서 처음으로 연을 구분한 분련시의 향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신라노래인 향가를 살펴보면, 신라노래에서 연을 구분한 시가의 형태는 문헌상으로 「보현십원가」가 처음이자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고려말의 고려가요가 분련시의 주된 갈래의 노래로 부상을 하게 된

13 김부식(1075-1151)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에는 신라 말에 최치원(857-?)이 지은 「오기(五伎)」라는 명칭으로 금환(金丸), 월전(月顛),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 등으로 연이 나누어진 5편의 한시가 있다. 그리고 1120년(예종 15) 예종이 지은 향찰표기(鄕札表記)의 가요인 「도이장가(悼二將歌)」라는 2수의 연장체 시가로 인식할 수 있는 향가가 있다. 이 노래는 신승겸(申崇謙 ?-927)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라는 책에는 그 제작동기에 관한 소상한 기록과 함께 작품이 전하고 있다.

다. 신라노래인 향가에서는 작품전체가 하나의 연으로 된 짧은 노래의 형식의 향가가 14편으로 매우 우세하다. 『삼국유사』에 실린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는 신라노래가 지닌 짧은 노래의 형식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라시대의 노래와는 다르게 고려시대의 노래에서는 단연체인 짧은 노래보다는 연장체 혹은 분련시라고 하는 연(聯)이 계속되는 노래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분련시(分聯詩)는 나누어진 여러 개의 연(聯)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형식인데 고려가요의 많은 노래가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고려가요의 경기체가로는 고려시대의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의 작품이 여러 개의 연을 이어가는 연장체의 시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¹⁴ 고려시대에 연을 구분한 연장체 노래들은 한 연을 노래하는 음악에 맞추어 거듭하는 연들을 이어가면서 노래하는 형식이므로 얼마든지 그 노래가 길어질 수 있다. 고려가요로서 연을 구분한 작품에는 「서경별곡」이 14연이며, 「동동」이 13연이고, 「정석가」가 10연이며, 「청산별곡」이 8연이고, 「만전춘」이 6연이며, 「쌍화집」은 4연이고, 「가시리」는 4연으로 되어 있다.¹⁵ 결국, 고려가요를 가리켜 긴 노래 또는 연장체(聯章體) 시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연(聯)을 거듭하면서 그 길이가 길어지는 분련시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련시 혹은 연장체의 시가는 고려 말기의 「어부가」와 「오륜가」 등을 거치면서 문학이 국가차원의 노래가 아니라 개인의 노래라는 인식으로 발전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신흥사대부들이 개척한 새로운 장르의 연시조를 등장하게 하였다.¹⁶

14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2000, 111면.

15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참조.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7, 참조.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78, 참조.

이종술, 『고려속요의 형태적 고구』, 국어국문학회편, 1979, 90면.

16 류해춘, 『시조문학의 정체성과 문화현상』, 보고사, 2017, 37-57면.

조선시대에 연을 구분한 시조의 노래로는 맹사성(1360-1438)의 「강호사시가」와 황희(1363-1452)의 「전원사시가」가 앞선 시기의 작품이다. 뒤를 이어서 주세붕(1495-1554)의 「오륜가」와 이황(1501-1570)의 「도산십이곡」 등이 창작되었다. 자연과 윤리를 노래하는 연시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철(1536-1593)의 「훈민가」 16수, 고응척(1531-1606)의 「대학곡」 28수, 박선장(1555-1617)의 「오륜가」 8수, 박인로(1561-1642)의 「오륜가」 25수 등으로 연시조가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¹⁷

이처럼 신라노래에서 나타난 연을 구별하기 시작한 시가의 형식과 그 전통은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를 거쳐 조선시대의 연시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현대시에서도 중요한 창작의 기법으로 지속하여 계승되고 있다.

4. 신라노래인 장시의 맥락과 그 발전

신라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우리의 문헌에는 우리글이나 향찰로 기록한 장시(長詩)나 긴 노래의 원문이 전해 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자세하게 들추어보면, 한시(漢詩)나 가사부재(歌詞不載)의 신라노래에 대한 기록에 의거하여 신라시대에 존재했던 긴 노래인 장시(長詩)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긴 노래의 흔적으로는 『삼국유사』의 「월명사도솔가」조에 등장하는 ‘문장이 길어서 다 신지 못한다.’는 ‘문다부재文多不載’의 의미에서 긴 노래의 존재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월명사도솔가」조에는

17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참조.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9, 1-862면.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참조.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2, 참조.

‘지금에 이를 이르러 「산화가(散花歌)」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도솔가(兜率歌)」라 해야 하며 별도로 「산화가」가 있는데 문장이 길어서 게재하지 못한다¹⁸」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산화가」로 신라시대의 긴 노래는 한시의 사부(辭賦)처럼 길어진 장시로 된 시형식이라 할 수 있다. 「산화가」에는 두 가지의 형식의 노래가 있었다. 「도솔가」처럼 짧은 형식의 노래와 긴 형식의 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소개하지 않은 신라노래인 「산화가」는 그 노래의 길이가 긴 장시의 형태라서 문헌에 실지 못한다고 저자가 소개하고 있다.¹⁹

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 대에 지은 20줄의 장시(長詩)로 된 한시(漢詩)인 「태평송(太平頌)」을 수록하고 있다. 이 시는 650년에 지어진 외교문서의 하나로, 그 내용은 당나라의 중국통일을 찬양하는 송(頌)의 형식으로 된 장시(長詩)이다. 이 노래는 시인이 느낀 감정을 사실적인 한자어(漢字語)로 표현하는 부(賦)의 방식을 유지하는 고시(古詩)의 형식이다.²⁰ 시인은 신라와 당나라의 정치적인 외교문서를 5언의 한시로 우회적으로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7세기 중반에 한자어로 시경체의 형식을 빌어와 5언 한시로 창작한 긴 노래의 형식을 지닌 장시(長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7세기 신라의 문학에서는 장시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창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긴 노래의 흔적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발전하여 스님과 사대부들이 수용하여 가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고려 말기의 가사에는 나옹화상(1320-1376)이 지었다는 「서왕가(西往歌)」와 1371년(공민왕20) 신득청(申得淸)이 지었다는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등이 있다.²¹ 앞의 두 작품은 연

18 일연, 「월명사도솔가조」, 『삼국유사』,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19 정렬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16-17면.

20 이구의, 『신라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28-29면 참조.

21 정재호,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74면 참조.

류해춘, 「영남지역 가사문학의 위상과 현대화의 과제」, 『국제언어문학』 47호, 2020, 107

을 구분하지 않은 장시의 형태로 가사의 발생을 고려 말기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시(長詩)의 형식으로 지어진 가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오자 정극인(1401-1481)의 「상춘곡」이 등장한다.²² 그 뒤를 이어서 16세기 말에는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가 유행하여 긴 노래인 장시를 크게 유행시켰다.²³ 조선전기 사대부에 의해 활발하게 창작된 가사는 조선후기에는 서민이나 부녀자에게 전해져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수용하는 장르가 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사대부들이 가사의 창작에 많이 동참하였으며, 더욱이 18세기부터는 서민과 여성들도 가사의 주된 작가로 부상하여 많은 사대부가사와 서민가사 그리고 여성들의 작품인 내방가사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민과 여성들도 연의 구분이 없는 긴 노래인 가사를 활발하게 창작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현재까지도 경북지역에서는 일부의 여성들이 내방가사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가사를 창작하면서 전통문화로 내방가사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5. 나오는 말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은 한국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신라노래인 향가와 한국시가의 정체성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그 의의를 점검하고 있다. 신라노래와 한국 시가의 흐름을 연구한 논의들은 일정하게 어느 부분에서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

면 참조.

22 류해춘,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관련양상」, 『시조학논총』 44집, 2016, 165면.

23 이상보, 「사대부와 가사」, 『가사연구』, 국어국문학회편, 1998, 43면 참조.

서 이 글에서는 선학들이 연구한 논의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논점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설을 세우고 신라노래와 한국시가가 지닌 유형의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공통점은 단형시(短型詩), 분련시(分聯詩), 그리고 장시(長詩)라는 새로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신라시가, 향가, 사뇌가 등으로 불리는 신라노래의 근본적인 형식을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단형시인 짧은 노래의 향가이며, 둘째는 연을 구분하여 노래하는 분련시의 향가이고, 셋째는 장시(長詩)의 형태로 연(聯)을 나누지 않은 긴 노래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흐름을 형식문제와 연결시켜서 단형시와 분련시 그리고 장시라는 3가지 유형의 시형식이 신라시대부터 오늘날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한국시가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3가지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유형의 한국 시가문학의 지속성과 그 정체성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신라노래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은 한국시가의 역사와 흐름을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신라노래의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라노래로서 연(聯)이 하나인 짧은 단형시인 신라노래는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형식으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이다. 다음으로 분련시이면서 11연(聯)으로 나누어진 연장체 형식의 신라노래는 『균여전』에 실려 있는 「보현십원가」이다. 마지막으로 신라노래로서 연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긴 노래인 장시에 대한 기록은 ‘글자가 많아서 게재하지를 못하였다’라고 설명해 놓은 월명사의 「도솔가」조에 나오는 「산화가」와 외교문서인 진덕여왕 시절에 창작한 한시 「태평송」 등에서 장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유형은 신라노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한국시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첫째로 향가에서 나타난 단형시의 형식으로 줄 수가 제한되어 있는 짧은 노래는 고려시대의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시조 등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둘째로 분련시의 형

식으로 연을 구분하여 연속적으로 노래하는 「보현십원가」의 향가는 고려시대의 고려가요와 조선시대의 연시조 등에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을 나누지 않은 장시의 형식은 신라노래의 전통을 이어서 창작된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에 창작된 가사의 갈래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신라노래에 나타난 단형시, 분련시, 장시 등의 유형은 신라노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의 한국시가에서도 그대로 그 전통을 계승하며 지속되고 있다. 결국 단형시, 분련시, 장시 등으로 분류되는 한국시가의 유형은 고대사회인 신라시대로부터 21세기인 현대사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한국시가의 정체성과 그 지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형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신라노래인 향가를 중심으로 단형시, 분련시, 그리고 장시 등의 3가지 유형을 도출하여, 각 유형의 변화와 지속을 한국시가에서 찾아보고 그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신라노래의 형식론을 향가의 개별작품의 형식인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규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신라노래인 향가가 지니고 있는 형식인 단형시, 분련시, 장시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맥락을 검토하여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에 스며있는 전통과 그 정체성의 흐름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시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게 자료를 모으고 참신한 시각으로 연구를 지속해서 이 논의를 이 분야의 새로운 문학기론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ABSTRACT]

**The form of Shilla songs and Korean poetry,
focusing on the formal aspect of tradition**

Ryoo, Haecheon(Sungkyul University)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of Shilla songs and Korean poetry, focusing on the formal aspect of tradition and its relevance.

The forms of Shilla songs, centered on hyangga, also appear to be very diverse. However, Silla songs are relatively short hyangga songs that have a formality as literature and music, or songs with typical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songs that are followed by stanzas, or long songs with the form of long poems such as master poems and lyrics. It can be organized in three formats: This form of Silla songs has been an important form of Korean poetry through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nd exists as a universal form of poetry in world literature.

In the end, the format of Korean poetry looks very diverse and complicated, but i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simple forms. The form of Korean poetry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hort poetry in which have a fixed number of lines, fragment-united poetry in which have the fixed number of lines, and long poetry in which the number of stanzas is not divided. And Korean modern poetry has the form of short poems, fragment-united poems with divided meanings, and long poems in a morphological sense.

Key words: Shilla Song(신라노래), Korean Poetry, Poetry Form, Short Poetry, Fragment-united Poetry, Long Poetry, Identity, Hyang-ga(향가), Contemporary Poetry

[참고문헌]

■ 기본자료

『균여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 단행본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7.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2.

류열, 『향가연구』, 박이정, 2003.

류혜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서, 2009.

류혜춘, 『한국시가의 맥락과 소통』, 역락, 2019.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78.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서원섭, 『한국시조연구』, 형설출판사, 1977.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정렬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16-17면.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2.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조동일, 『한국문학사통사』1권, 지식산업사, 128면.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홍기문, 『향가해석』, 사회과학원, 1956.

■ 논문

류해춘, 「시조와 가사의 향유방식과 그 관련양상」, 『시조학논총』 44집, 2016, 165-195면.

류해춘, 「신라노래와 한국시가의 흐름」, 『세계 한글문학 민족문학의 요람』, 제4회 한글작가대회, 2018, 207-213면

류해춘, 「영남지역 가사문학의 위상과 현대화의 과제」, 『국제언어문학』 47호, 2020, 101-140면.